

주격 중출 구성에 대하여

최형강*

I. 서론

1. 논의 대상의 한정

이른바 주격 중출문을 처리하는 데에는 세 가지 입장이 있다.¹⁾ 주격을 주어와 관련시켜 이중 주어문으로 처리하는 입장, 주제(어)와 주어로 처리하는 입장, 주어와 보어로 처리하는 입장이 그것인데, 각각의 견해가 각각의 이론적 토대 위에서 각 입장에 적절한 예들에 한해서 어느 정도의 설득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모든 주격 중출문이 '이중 주어문'이거나 '주제(어)-주어'이거나 '주어-보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각각의 유형에 적합한 설명 방식만을 고수한다면 전체 주격 중출문의 해석은 이루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주격 중출문에 대한 해석도 제자리 걸음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서는 위의 세 가지 관점에 따라 달리 파악되었던 몇몇의 주격 중출 구성을 새로운 방법론을 통해 재해석함으로써 주격 중출문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고자 한다.

이제 여기서 논의의 대상으로 삼을 주격 중출 구성에 대해 알아보자.

주격 중출문의 상당수는 주제(어)-주어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구성

* 서울대 강사

1) '주격 중출'이 '주어 중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조사 '이/가'를 가진 명사구 중출이나 조사 '은/는'을 가진 명사구 중출을 의미하는 것이다.

은 서술어가 요구하는 논항들이 문장에 모두 나타나고 거기에 더해 서술어의 의미역과는 무관한 명사구가 문두에 나타나는 구성이다. 복수 표지 ‘-들’이나 주체 존대 표지 ‘-시-’와의 호응 관계를 통해 알 수 있는 사항은 후행 명사구가 서술어가 요구하는 논항인 ‘주어’라는 것이다.²⁾

- (1) ㄱ. 철수가 동생이 집을 나갔다.
 ㄴ. 철수가 동생들이 집을 나가서들 안 돌아왔다.
 ㄷ. 철수가 아버지가 집을 나가셨다.

(1ㄴ)에서 ‘나가서들’의 복수표지 ‘-들’과 호응하는 것은 ‘동생들’이지 ‘철수’가 아니고, (1ㄷ)에서 ‘나가셨다’의 주체 존대 표지 ‘-시-’와 호응하는 것은 ‘아버지’이지 ‘철수’가 아니므로 (1ㄴ)의 ‘동생들이’와 (1ㄷ)의 ‘아버지가’가 주어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1ㄱ)은 ‘동생이’가 주어이고 ‘철수가’가 주제로 해석되는 문장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체(어)-주어 구성은 우리의 논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가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서술어와 관련성을 가지는 두 주격 명사구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역시 주격 중출문의 대표적 유형의 하나인 ‘부류·성원 구성’ 역시 논의의 대상으로 삼지 않을 것이다. 다음에 제시되는 부류·성원 구성의 예들에서 선행 명사구는 서술어와 의미역 관계를 보이지 않고 주어가 속하는 집합을 표현해 줄 뿐이다.

- (2) ㄱ. 생선은 조기가 맛있다.
 ㄴ. 라면은 신라면이 좋겠다.

본고의 논의 대상을 서술어와 관련성을 가지는 두 주격어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전제로 주격 중출 구성을 다룬다는 것을 의미한다.

- (3) ㄱ. 한 문장 안에서 주격 조사가 쓰인 두 성분 중 하나가 주어적인 특성을 보이고 다른 하나가 그와는 다른 특성을 보인다면 그 다른 하나는 주어

2) 이홍식(1996:41~43)에서 제시한 예들과 주어 확인 방법들을 가져온 것이다.

아니다.

- ㄴ. 주격 조사가 쓰인, 주어 아닌 성분이 서술어와 관련되어 생략하기 어렵다면 문제의 그 성분은 주제(어)라기보다는 보어이다.
- ㄷ. 어순 재배치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한 문장 안에서 주어와 보어 중 주어가 보어에 선행한다.

(3ㄱ)은 주격 중출 구성에 쓰인 두 주격어의 문법적인 지위가 다를 수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고, (3ㄴ)은 주격 조사와 조사를 공유하지만 문법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차이가 있는 성분은 보어와 주제(어)가 있는데 서술어가 요구하는 논항인 경우는 '보어'임을 말하는 것이다. (3ㄷ)은 주어와 보어로 이루어진 주격 중출 구성의 자연스러운 어순이 '주어-보어'이므로 선행어가 주어임을 밝힌다면 후행어를 보어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후행어가 서술어와 통사론적, 의미론적으로 관련된 성분일 경우에 한해서 (3ㄷ)이 유효할 것이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해결해야 할 문제의 하나는 주격 표지와 관련된 것이다. '이/가'만을 주격 표지로 인정할 경우 '은/는'이 쓰인 명사구가 포함된 문장은 주격 중출문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은/는'이 쓰인 명사구 역시 주어의 논의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 '은/는' 명사구 역시 '주어로 인정될 수 없다'면 '철수는 집에 갔다'와 같은 문장은 주어가 없는 문장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주제 표지라고도 하는 '은/는'을 주어와 연관시키려는 노력의 하나는 임홍빈(1987)에서 찾을 수 있다. 임홍빈(1987)에서는 주제는 기저에서 생성되고, 그와 연관 해석되는 주어의 자리는 공범주로 상정된다고 하였다.³⁾ 이러한 해석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철수는'이 분명히 주어의 위치에 놓여 있으나 주어는 공범주로 나타나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자리 주제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주어와 주제를 동일 선상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 탈피하여 '주어'를 문법적인 관련성의 문제에서 파악

3) 임홍빈(1987)에서 상정한 구조는 다음과 같다.

ㄱ. 철수는 그 일을 하였다.

ㄴ. [for 철수는] [NPe] [그 일을 하-]

하고, 주제를 문법적 기능의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문장 내에서의 관련성에 입각해 설정된 범주인 '주어, 목적어' 등은 서술어와의 관련성에서 그 지위를 획득하지만, 문법적 기능 면에서 파악할 수 있는 '주제'는 그 문장 내에서의 관련성과 관계없이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서술어와의 관련성에 있어서는 주어로 파악할 수 있는 명사구가 주제의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⁴⁾ 이에 따라 '철수는 집에 갔다.'에서 '철수'는 그 문장 내에서 주어의 위치에서 주제의 기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⁵⁾ 이와 같은 해석 아래에서는 '선생님께서 (다른 학생들은 남게 하더라도) 철수는 집에 가게 하셨다'와 같은 문장에서의 '철수'는 문장 내에서의 관련성으로 보면 피사동주가 되지만, 주제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서술어와의 관련성 측면에서 주어나 보어로 해석될 수 있다면 '은/는' 표지를 가진 명사구는 주제 기능을 하는 주어나 보어이므로, 우리의 관심사가 될 수 있는 주격 중출 구성에는 '이/가' 중출 구성, '은/는' 중출 구성, '이/가'와 '은/는'이 함께 쓰인 구성이 포함된다.

2. 주격 중출문의 유형

전형적인 주제(어)-주어 구성을 제외한, 주격 중출문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전체-부분 구성, 심리 형용사 구성, 소유 구성, 수량사 구성 등이 있다. 대부분이 형용사와 관련된 구성으로, 다음의 (4)는 전체-부분 구성의 예이고 (5)는 심리 형용사 구성의 예, (6)은 소유 구성의 예이다.

(4) ㄱ. 내가 배가 고프다.

4) 이는 'Subject와 Object는 문법적인 관련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문법적인 관련성으로서의 그들의 지위는 수동화에 의해 변화되지만, 문법적인 역할인 Agent와 Patient는 변하지 않게 되는 것'이라는 Palmer(1994)의 주장을 국어의 주어와 주제 문제에 결부시켜 해석한 것이다.

5) 김영희(1988:10)에서는 문장의 세 층위를 의미 층위(의미적-서술소), 통사 층위(주어-서술어), 사용 층위(주제-설명)로 나눈 바 있는데 주어와 주제를 다른 층위에서 설명한다는 점에서는 필자의 입장과 동계의 것이라 할 수 있다.

- ㄴ. 그 여자가 목소리가 크다.
- ㄷ. 그 여자가 배가 부르다.
- ㄹ. 그 사람이 손이 작다.
- (5) ㄱ. 나는 커피가 좋다.⁶⁾
- ㄴ. 나는 군대가 싫다.
- ㄷ. 나는 사자가 무섭다.
- (6) ㄱ. 철수가 돈이 많다.⁷⁾
- ㄴ. 철수가 야망이 있다.

수량사 구성의 경우 이전의 논의들에서는 ‘학생이 셋이 왔다’ 등이 전형적인 예로 취급되었는데 실제로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논항들이 주격 중출이 된 경우는 다음과 같은 예이다.

- (7) ㄱ. (서울-청주) 왕복시간이 3시간이 걸린다.
- ㄴ. 이 코끼리는 1톤이 나간다.
- ㄷ. (파마를 하는 데에는) 돈이 3만원이 든다.

위의 예들은 ‘걸린다, 나가다, 들다’ 등의 자동사가 이루는 구성으로 그 의미 특성상 수량사 보어를 반드시 요구하는 구성이다.⁸⁾ 이러한 수량사 형식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본고에서는 이들 형식이 동사가 요구하는 성분이라는 점에서 주격 중출 구성 중 수량사 구성의 특징을 보다 확연하게 보여주는 형식이라고 생각되어 이들 예를 수량사 구성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전체-부분 구성, 소유 구성, 수량사 구성 모두 대부분의 논의에서 ‘주제(어)-주어 구성’으로 다루어졌던 구성들이다. 이들을 주제(어)-주어 구성으로

6) 심리 형용사 구성의 경우 선행 명사구가 ‘나는’과 같이 조사 ‘은/는’을 취하는 것이 조사 ‘이/가’를 취하는 것보다 더 자연스러우므로 ‘은/는’을 가진 것으로 제시하였다.

7) 유동석(1998)에서 ‘영수가 돈이 많다’와 같은 예를 주격 중출 구성 중 ‘주어-보어 구성’에서 다루고 있다.

8) Smith(1992)에서는 weigh, cost 등의 동사가 요구하는 수량사를 M-complement라 하여 값, 가치, 무게, 기간과 관련된 표현들의 특성을 다룬 바 있다.

보는 데에는 형용사가 대상역 논항 하나만을 요구한다는 것이 그 전제로 요구되었고 그 선행 명사구에 쓰인 문법 표지가 주격 표지가 아니라 주제 표지라는 설명이 주어졌다.⁹⁾

심리 형용사 구성에 대해서는 선행 명사구인 경험주 성분이 '은/는'과 보다 밀접히 관련된다는 점에서 '주제(어)-주어 구성'이라는 견해와 경험주의 심리 상태를 서술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경험주를 주어로 택한다는 '주어-보어 구성'이라는 견해가 있다.

이처럼 주격 중출문의 각 유형들은 '주제(어)-주어 구성'과 '주어-보어 구성', 혹은 글자 그대로 '이중 주어문'이라는 견해로 나누어져 설명되고 있는데,¹⁰⁾ 본고에서는 이들 각 유형들을 동일한 기준에 의해 구성의 특성을 확인하고 해석하는 데에 힘을 쏟고자 한다.

II. 주격 중출문에서의 주어 확인

1. 기존 방법론의 문제

주격 중출문의 유형을 확인하는 작업에서, 정확히는 주격 중출문에서의 주어를 확인하는 작업에서 이용된 방법으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복수 표지 '-들'이나 주체 존대 표지 '-시-'와의 호응 관계를 살피는 것이나, 재귀사 '자기'와의 관련성에 주목하여 해석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들이' 주어에만 관련되는 요소도 아니고 수량사에는 '-들이' 붙을 수 없다는 점과 '-시-' 역시도 주어가 아니라 경험주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면, 주격 중출문에서 주어를 확인하는 장치들로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얻게 된다. 이흥식(1996:51)에는 '선생님들이 손들이 다들 크시다'라는 예문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 예에서 '다'에 '-들이' 결합하도록 유도한 것이

9) 임흥빈(1974, 1985, 1987), 이흥식(1996)이 이러한 관점을 가진 대표적인 논의들이다.

10) 김영희(1988), 임동훈(1997) 등이 주격 중출문을 이중 주어문으로 파악하는 논의들이다.

'선생님들'인지 '손들'인지는 분명하게 알 수 없다. 임흥빈·장소원(1995:383~385)에서는 '아버님은 차가 고장나셨다'나 '선생님은 키가 크시다' 등의 예를 통해 '-시'가 경험적 해석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자기'의 경우, Keenan(1976:315), 임흥빈(1987)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는 주어와 재귀 대명사를 통제하기는 하지만 주격 중출 구성 중에 재귀사 '자기'를 삽입하기 어려운 구성들이 있어 전체적인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 코끼리는 자기가 1톤이 나간다'나 '*학생들이 자기들이 셋이 왔다'와 같은 문장은 '자기가 삽입됨으로써 어색한 문장이 되어 버려서 주어와 '자기'와의 관계를 살펴보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종래에 주격 중출문의 주어 확인 절차에 주로 이용되었던 방식의 하나로 서술의 대상을 통해 주어를 확인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흥식(1996:52)에서는 '손이 크신 선생님'과 '*선생님이 크신 손'의 비교를 통해 '손'이 서술어 '크다'의 직접적인 서술 대상이므로 '주어'라고 하였다. '배가 아프신 선생님'과 '*선생님이 아프신 배'에 대해서도 같은 해석을 하여 '배'가 '아프다'의 서술 대상이 되므로 '주어'라고 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전형적인 주어-보어 구성이라고 하는 '되다' 구성을 이러한 관계절로 바꾸었을 때에는 위와 같은 해석을 내릴 수가 없다.

- (1) ㄱ. 이문열이 작가가 되었다.
 ㄴ. 작가가 된 이문열
 ㄷ. *이문열이 된 작가

위의 예문 (1ㄱ)에서 주어는 '이문열(이)'이고 보어는 '작가(가)'이다. 이를 관계절로 바꾸었을 때 (1ㄴ)의 경우만이 자연스럽다. 이 때 우리는 '작가(가)'를 보어로 처리하지, 주어로 처리하지는 않는다. 결국 '작가가 되다'의 서술의 대상이 '이문열'이므로 '이문열(이)'는 주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¹¹⁾

11) 서술어가 대용될 때 목적어와 서술어, 보어와 서술어 전체가 대용되므로 보어와 서술어가 하나의 단위가 되어 주어를 서술 대상으로 삼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목적어와 서술어, 보어와 서술어가 대용되는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ㄱ. 철수는 사과를 먹었고, 영희도 그랬다.

'손이 크신 선생님'과 '배가 아프신 선생님'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손이 크시다'의 서술 대상과 '배가 아프시다'의 서술 대상이 각각 '선생님'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서술어의 직접적인 서술 대상이 주어라면 서술어가 언급하고자 하지 않는 대상이, 즉 서술어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대상이 주어일 수는 없을 것이다.¹²⁾ 주어가 '문법화된 주제'라면 주어 역시 언급대상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¹³⁾

서술어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서 서술어와 함께 대응될 수 있는 성분이 '주어'일 수는 없고, 이는 '주어' 아닌 다른 성분으로 상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서술어의 서술 대상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선생님께서 손이 크시다'와 '선생님께서 배가 아프시다'에서 '손(이)'와 '배(가)'가 주어라고 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없고 오히려 '손(이)'와 '배(가)'가 주어 아닌 다른 성분임을 밝히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격 증출문은 기존의 검증 방법을 통해 그 구성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므로 새로운 방법론이 모색되어야만 한다. 여기에서 제시할 방법의 하나는 사동 구성에서의 기능적 차이를 통해 두 주격어 중 주어 성분을 가려내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과 함께 두 주격어의 지위를 검토하기 위해 생략 가능 여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먼저, 생략 가능 여부를 통해 두 주격어의 기능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ㄴ. 철수는 작가가 되었고, 영화도 그렸다.

12) Keenan(1976:313)에서는 주어는 서술어에 의해 표현되는 행동이나 특성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과 관련된다고 하여 '한 학생이 시를 썼다'에서 '시'의 존재는 쓰는 행위와 독립적일 수 없지만 '학생'은 쓰는 행위에서 독립된 존재임을 그 예로 든 바 있다.

13) Li & Tompson(1976)에서 주어론 문법화된 주제라고 하였다.

2. 생략 가능성

1) 선행 명사구나 후행 명사구의 생략

전체-부분 구성, 심리 형용사 구성, 소유 구성, 수량사 구성에서는 그러한 상황을 설명하는 문맥이 주어진다면 선행 명사구를 생략해도 그 문장은 성립에 이상을 가지지 않는다. 즉, 필수적 논항이기는 하되, 화용적 생략이 가능한 경우인 것이다.¹⁴⁾ 국어에서 필수적인 논항이지만 화용적 생략이 가능한 것은 '주어'이므로 이들 주격 중출문의 선행 명사구를 생략 가능성의 측면에서는 '주어'로 추정할 수 있다. 위에 제시했던 예문들을 가져와 생략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 보자. 먼저 선행 명사구가 생략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2) 가. ('내가'가 전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배가 고프다.
 나. ('어제 만난 여자'가 전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목소리가 크다.
 다. ('어제 만난 여자'가 전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배가 부르다.
 라. ('어제 만난 남자'가 전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손이 작다.
- (3) 가. ('나는'이 전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커피가 좋다.
 나. ('나는'이 전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군대가 싫다.
 다. ('나는'이 전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자가 무섭다.
- (4) 가. ('철수'가 전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돈이 많다.
 나. ('철수'가 전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야망이 있다.
- (5) 가. ('왕복 시간'이 전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3시간이 걸린다.
 나. ('코끼리'가 전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1톤이 나간다.

14) 정유진(1995:16~24)에서는 일차적으로 '술어(동사)에 의해 하위범주화되는 논항들'을 광의의 보어 즉, 보충어라는 하나의 용어로 포괄하고, 보충어의 하위범주로서 주어와 목적어 그리고 보어(협의의 보어)를 제시하였다. 또한, 문장 차원에서의 의무적 요소와 임의적 요소, 텍스트 차원에서의 필수적 요소와 수의적 요소, 협의의 보어에서의 필수적 보어와 수의적 보어를 각각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필수적 보어란, 이미 그 성분이 선행 문맥에 주어져 생략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졌는데도 생략되면 비문을 만드는 보어를 말한다. 화용적 생략이란, 한 문장의 구성 성분을 청자가 알고 있다고 화자가 가정하거나, 문맥에 주어진 경우에 그 성분이 생략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그것이 필수 논항이라고 하더라도 화용적 생략은 가능하다.

ㄷ. (‘파마 비용’이 전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3만원이 든다.

위의 예문 (2)에서 선행 명사구에 해당하는 내용이 전제되어 있을 경우 후행 명사구와 서술어만 쓰여도 문장의 성립에 이상을 가져오지 않는다. 예문 (3)과 (4)의 경우에서도 선행 명사구에 해당하는 내용이 전제되어 있다면 후행 명사구와 서술어만이 쓰인 문장이 성립에 이상을 가지는 문장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¹⁵⁾ 예문 (5)의 경우도 선행 명사구에 해당하는 상황이 주어 질 경우에 후행 명사구와 서술어가 함께 쓰인 문장만으로도 성립에 이상을 가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후행 명사구가 생략되었을 경우에는 적절한 문맥이 주어지기 어렵고, 그 수용 정도도 현저하게 낮아지는 경우가 있다. 필수적인 논항이면서 화용적 생략이 거의 불가능한 후행 명사구는 앞서 ‘주어’로 추정되는 선행 명사구와는 다른 문장 성분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주어 명사구와 동일한 격표지를 가지면서, 필수적인 논항이되 화용적으로 생략되기 어려운 문장 성분은 무엇일까? 국어에서 주어와 같이 조사 ‘이/가’를 가지면서 화용적으로 생략되기 어려운 필수 성분은 ‘보어’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후행 명사구를 ‘보어’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선행 명사구가 ‘주어’라면 선행 명사구와 다른 특징을 보이는 후행 명사구는 적어도 ‘주어’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다. 다음은 후행 명사구가 생략된 예이다.

(6) ㄱ. (‘배’가 전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가 고프다.¹⁶⁾

ㄴ. (‘목소리가 전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여자가 크다.

15) 이흥식(1996:57)에서는 ‘*호랑이가 싫다’는 ‘싫다’의 서술 대상이 호랑이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성립에 이상을 가지지만 ‘호랑이가 무섭다’에서는 경험주의 심리를 대상의 속성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성립에 이상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실제 자료들에서는 ‘정치가가 싫다’ 등의 문장이 쓰이는 것으로 보아 ‘싫다’의 경우에도 경험주 없이 쓰일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6) 물론, 다음과 같이 선행 화자가 ‘배가 고프다’는 말을 한 경우에는 후행 화자의 발화에서 ‘배’가 생략되는 것이 어색하지 않다.

ㄱ. 영이: 점심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배가 하나도 안 고프네.

ㄴ. 철수: 그래도 난 좀 고프네.....

- 다. ('배'가 전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여자가 부르다.
 라. ('손'이 전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남자가 작다.
 (7) 가. ('커피'가 전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나는 좋다.¹⁷⁾
 나. ('군대'가 전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나는 싫다.
 다. ('사자가 전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나는 무섭다.
 (8) 가. ('돈'이 전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철수가 많다.
 나. ('야망'이 전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철수가 있다.
 (9) 가. ('3시간'이 전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왕복 시간이 걸린다.
 나. ('1톤'이 전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코끼리가 나간다.
 다. ('3만원'이 전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돈이 든다.

예문 (6가, 다)의 '고프다'나 '부르다'와 같은 서술어의 경우 후행 명사구가 생략되기는 어렵다. 이는 '크다'나 '작다'와 같은 서술어보다는 '고프다'나 '부르다'와 같은 서술어가 후행 명사구와 보다 긴밀하게 의미론적인 관련성을 가지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즉, '목소리가 크다'나 '손이 작다'보다는 '배가 고프다'와 '배가 부르다'가 긴밀한 관련성을 지니는 언어적 표현이어서 그 일부를 생략한다면 온전한 문장을 만들기 어려운 경우라는 것이다. 이는 '크다'나 '작다'가 선행 성분에 대한 구속력이 약한 일반적인 서술어이고 '고프다'나 '부르다'는 선행 성분에 대한 구속력이 강한 특수한 부류의 서술어이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설명은 예문 (8가)와 (8나)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돈이 많다'가 '야망이 있다'보다는 의미론적인 관련성이 적은 표현이어서 '돈이'가 '야망이'보다는 생략되기 쉽다는 것이다. 예문 (7)에 쓰인 서술어 '좋다, 싫다, 무섭다'와 같이 경험주의 감정과 관련된 서술어의 경우에는 대상이 되는 명사구(커피, 군대, 사자)가 전제되어 있다면 선행 명사구와 서술어가 쓰여도 성립에 이상을 가지지는 않는다. 예문 (9)는 후행 명사구에 해당하는 내용이 전제되어 있다 하더라도 선행 명사구와 서술어만이 쓰일 수 없는 경우이다. 수량사 구성에서 '수량'과 관련된 후행 명사구가 생략된 채 그 문장이

17) 심리 형용사 구성과 전체-부분 구성인 경우에 모두 쓰일 수 있어 '좋다' 단독으로 쓰이거나 '나는 좋아'의 형식으로 쓰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듯하다. '나는 좋아, 나는 좋아, 입과 함께면'에서 '나는 좋아'는 심리 형용사 구성일 수도 있고 전체-부분 구성(나는 기분이 좋아)일 수도 있다.

온전한 의미를 전달하기는 당연히 어려울 것이다.

사실, 위의 예들을 통해서 선행 명사구가 생략되기 쉬운지 후행 명사구가 생략되기 쉬운지를 명확하게 가려내기는 어렵다. 단지, 후행 명사구와 서술어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는 경우에는 후행 명사구가 생략되기 어렵다는 점을 예문 (6ㄱ, ㄷ), (8ㄴ), (9)에서 확인할 수 있을 뿐이었다.

서술어와 관련성을 가지는 두 성분 중 비교적 생략하기 쉬운 문장 성분을 주어로, 상대적으로 생략하기 어려운 문장 성분을 보어로 보기 위해서는 생략 가능성의 여부가 확연히 가려져야 한다. 그러나 위의 예문 (2ㄴ, ㄹ)과 (6ㄴ, ㄹ), (3)과 (7), (4ㄱ)과 (8ㄱ)의 경우처럼 그 생략 가능성의 정도차가 확연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략 가능성이 주어와 보어를 판별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선행 명사구와 후행 명사구의 생략 가능성의 정도차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은 선행 명사구와 후행 명사구가 모두 서술어와 관련된 성분임을 암시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2) 동일 지시 생략

한 문장 안에서 동일 지시에 의해 생략될 수 있는 주어의 특성은 Keenan(1976:315~317)에 제시된 바 있다. 주어는 동일 지시 생략(Coreferential deletion)의 통제자 중의 하나이며 주어를 포함하는 주절 NP는 동일 지시적인 경우 보문에서 생략될 수 있고, 등위 접속문에서도 주어가 생략될 수 있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일반 언어학에 기초를 둔 Keenan(1976)의 주장을 국어의 주격 중출문에 적용하여 동일 지시에 의해 생략될 수 있는 요소를 주어로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¹⁸⁾ 동일 지시 생략의 통제자라고 해서 주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조사 '이/가'를 취하면서 동일 지시에 의해 생략될 수 없다면 주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주어 아닌 다른 성분으로 상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조사 '이/가'를 취하면서 주어가

18) 물론, 국어의 경우 목적어도 동일 지시에 의해 생략될 수 있는 요소이나 우리의 논의에서는 목적어가 포함된 문장이 예가 될 수 없으므로 이 경우는 문제로 삼을 필요가 없다.

아닌 성분은 국어에서 보어밖에 없으므로 동일 지시에 생략될 수 없는 명사구는 '보어'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주격 중출문에 대해서는 등위 접속문에서의 동일 지시 생략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등위 접속문의 후행절에서 선행 명사구와 후행 명사구가 생략된 경우를 비교하면 어느 것이 동일 지시 생략의 통제자인 주어로 기능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예를 통해 등위 접속문에서 동일 지시에 의해 생략될 수 있는 요소를 확인해 보자. (10ㄱ, ㄷ), (11ㄱ), (12ㄱ)은 선행 명사구가 생략된 경우이고 (10ㄴ, ㄹ), (11ㄴ), (12ㄴ)은 후행 명사구가 생략된 경우이다.

- (10) ㄱ. 나는 배가 고프고, e₁ 목이 마르다.
 ㄴ. ??나는 배가 고프고, 철수도 e₁ 고프다.
 ㄷ. 그 여자가 목소리가 크고, e₁ 손이 작다.
 ㄹ. ?그 여자가 목소리가 크고, 그 남자는 e₁ 작다.
- (11) ㄱ. 나는 커피가 좋고, e₁ 군대가 싫다.
 ㄴ. ??나는 커피가 좋고, 철수도 e₁ 좋다.
- (12) ㄱ. 철수가 야망이 있고, e₁ 돈이 많다.
 ㄴ. ?철수가 야망이 있고, 영희도 e₁ 있다.

위의 예문에서 문맥이 주어졌을 경우에 보다 더 자연스러운 경우는 선행 명사구가 동일 지시 생략으로 후행절에 쓰이지 않은 경우이다. 이는 선행 명사구가 주어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10ㄴ, ㄹ)과 같이 후행 명사구가 생략된 경우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어서 선행 명사구가 주어임을 보이는 절대적인 증거라고는 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물론, (11ㄴ)이나 (12ㄴ)과 같이 후행 명사구가 쉽게 예상할 수 없는 명사구일 경우에는 후행 명사구의 동일 지시 생략이 보다 어려울 것이다.

3. 사동 구성

'사동 구성'을 통해 주격 중출문에서의 '주어'를 확인하는 것은 이른바 '주어올리기' 방식과 유사한 면이 있다. 그러나, 김영희(1988), 임동훈(1997) 등

에서 주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도입했던 '주어올리기' 방식은 주격 중출문 전체에 대해 적용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형적인 주격 중출문을 그 적용 대상으로 삼은 것도 아니라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¹⁹⁾

위의 주격 중출문을 이루는 서술어들은 사동 접미사가 결합된 사동사로 나타날 수 없지만,²⁰⁾ 사동 구성(장형 사동)을 이룰 수는 있다.²¹⁾ 사동 구성에서 주어를 확인하는 방법은 주동문에서의 주어가 사동 구성에서 어떤 지위로 나타나는지를 비교하는 것이다.

'게 하다'에 의한 사동 구성, 즉 장형 사동에서 '을/를' 명사구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피사동주, 즉 주동문에서의 주어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전체부분 구성, 심리 형용사 구성, 소유 구성, 수량사 구성에서 피사동주에 해당하는 것은 선행 명사구라 할 수 있다. 아래에 제시한 (13L), (14L), (15L), (16L), (17L), (18L), (19L)에서 알 수 있듯이 선행 명사구(아래의 예문에서 진하게 표시된 부분)만이 '을/를' 명사구로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²²⁾

19) 김영희(1988:26)에서 제시한 겹주어들에 대한 주어올리기의 예는 다음과 같다.

- ㄱ. 나는 한국인이 건망증이 심하다고 본다.
- ㄴ. 나는 한국인을 건망증이 심하다고 본다.
- ㄷ. 나는 건망증을 한국인이 심하다고 본다.
- ㄹ. 나는 한국인을 건망증을 심하다고 본다.

임동훈(1997)에서는 '나는 호랑이를 무섭다고 생각한다'를 하위문의 주어가 상위문의 목적어로 인상되는 경우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주어가 하나인 '호랑이가 무섭다'라는 문장이 내포된 것일 뿐 이중 주어문이 내포된 것이 아니므로 이중 주어문에 대한 주어올리기의 예로는 적당하지 않다.

- 20) '키우다'는 '크게 하다가 아니라 '양육하다, 기르다'의 의미로 쓰이므로 여기에서는 '키우다'를 사동 형식의 예로 제시하지 않겠다.
- 21) 사동문을 엄격하게 사람이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경우로만 한정한다면 아래에서 제시될 예들은 사동문이나 사동 구성의 범주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러나 형용사와 자동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동 구성 안에 이들을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들이 전형적인 사동 구성은 아니지만 이러한 구성 안에서 선행 명사구와 후행 명사구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는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22) 임흥빈·장소원(1995:430)에서는 '동생이 형을 살게 하였다'에서 '형울이 주제 성분으로 '동생이 형:을 [ei 살게 하였다'의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였는데 본

선행 명사구와 후행 명사구가 모두 '을/를' 명사구로 나타나지 않는 한, 후행 명사구만 '을/를' 명사구로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다이어트 체조는 영희를 배를 고프게 했다/만들었다'와 같이 선행 명사구와 후행 명사구 모두 '을/를'로 나타나는 경우는 후행 명사구에 초점이 주어지거나 주제화되었을 때에만 성립에 이상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비교를 위해 '되다'와 관련된 사동 구성도 제시하기로 하겠다.

아래에서 (13), (14), (15)는 전체-부분 구성, (16)은 심리 형용사 구성, (17)은 소유 구성, (18), (19)는 수량사 구성의 예이다. (20)은 비교를 위해 제시하는 '되다' 구성이다.

- (13) 가. 다이어트 체조는 **영희가** 배가 고프게 했다/만들었다.
 나. 다이어트 체조는 **영희를** 배가 고프게 했다/만들었다.
 다. *다이어트 체조는 **영희가** 배를 고프게 했다/만들었다.
- (14) 가. 아이스크림은 **서영이가** 배가 아프게 했다/만들었다.
 나. 아이스크림은 **서영이**를 배가 아프게 했다/만들었다.
 다. *아이스크림은 **서영이가** 배를 아프게 했다/만들었다.
- (15) 가. 성장호르몬은 **철수가** 키가 크게 했다/만들었다.
 나. 성장호르몬은 **철수**를 키가 크게 했다/만들었다.
 다. *성장호르몬은 **철수가** 키를 크게 했다/만들었다.
- (16) 가. 옛날 이야기는 **난희가** 사자가 무섭게 했다/만들었다.
 나. ?옛날 이야기는 **난희**를 사자가 무섭게 했다/만들었다.
 다. *옛날 이야기는 **난희가** 사자를 무섭게 했다/만들었다.
- (17) 가. 복권 당첨은 **철수가** 돈이 많게 했다/만들었다.
 나. 복권 당첨은 **철수**를 돈이 많게 했다/만들었다.
 다. *복권 당첨은 **철수가** 돈을 많게 했다/만들었다.
- (18) 가. 꼬끼리의 빠른 성장은 **꼬끼리가** 1톤이 나가게 했다/만들었다.
 나. 꼬끼리의 빠른 성장은 **꼬끼리**를 1톤이 나가게 했다/만들었다.
 다. ??꼬끼리의 빠른 성장은 **꼬끼리가** 1톤을 나가게 했다/만들었다.
- (19) 가. 잘못된 머리 손질은 추가로 **손질비용이** 3만원이 들게 했다/만들었다.
 나. 잘못된 머리 손질은 추가로 **손질비용**을 3만원이 들게 했다/만들었다.
 다. *잘못된 머리 손질은 추가로 **손질비용이** 3만원을 들게 했다/만들었다.

고에서는 이 '을/를' 구성이 목적어이나 주제어이나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주동문의 주어가 사동 구성에서 '을/를' 구성으로 나타난다는 사실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다.

- (20) ㄱ. 어머니의 극성은 **이의정**이 연기자가 되게 했다/만들었다.
 ㄴ. 어머니의 극성은 **이의정**을 연기자가 되게 했다/만들었다.
 ㄷ. *어머니의 극성은 **이의정**이 연기자를 되게 했다/만들었다.

사동 구성에서 ‘을/를’ 명사구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피사동주, 즉 주동문에서의 주어라면 선행 명사구가 ‘주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피사동주로 기능할 수 없는 후행 명사구는 주동문에서도 주어 아닌 성분, 즉 보어로 기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III. 결 론

지금까지 주격 중출 구성 중 전체-부분 구성, 심리 형용사 구성, 소유 구성, 수량사 구성의 선행 명사구와 후행 명사구의 특성을 생략 가능 여부와 사동 구성 형성 여부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선행 명사구는 생략될 수 있는 논항으로 사동 구성에서 ‘을/를’ 명사구로 나타날 수 있는 피사동주의 역할을 하고, 후행 명사구는 생략되기 어려운 논항으로서 사동 구성에서 단독으로 ‘을/를’ 명사구로 나타날 수 없어서 피사동주의 역할은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사동 구성에서 선행 명사구와 후행 명사구 모두 ‘을/를’ 명사구로 나타날 수 있으나 이 때의 후행 명사구는 주제화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화된 경우를 제외한다면, 사동 구성에서 후행 명사구만 ‘을/를’ 명사구로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은 후행 명사구가 ‘주어’가 아니라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사동문에서의 피사동주가 주동문에서의 ‘주어’라면 위의 주격 중출문에서의 선행 명사구는 주어일 수밖에 없으며, 주어가 아니면서 필수적 논항이며 조사 ‘이/가’를 취하는 후행 명사구는 보어일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주격 중출문의 해석은 대부분 형용사와 관련된 예들을 통해 이루어졌고, 본고에서 다룬 예문들의 대부분도 기존 논의에서 언급된 바 있는 형용사들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었다. 수량사 구성의 경우에는 이전의 논의

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들다, 나가다’ 등의 서술어들을 활용하여 주격 중출문의 범위를 확대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더 많은 예를 보충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자동사와 관련된 주격 중출 구성도 논의의 대상에 포함시켜서 계량학적으로 주격 중출문을 해석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논의의 대상을 확대할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른바 연어 구성이라고 할 만한 것들도 보어 논의에 포함시키느냐 하는 것인데 연어 구성에 대해서는 적절한 기준에 의해 주격 중출 구성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장명윤(1996), 「이중주격구문에 대한 최소주의적 접근」, 『한국어학』 4.
- 김기혁(1995), 『국어 문법 연구-형태·통어론』, 박이정.
- 김동식(1993), 「현대국어 동사의 통사론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희(1988), 『한국어 통사론의 모색』, 탑출판사.
- 김홍수(1993), 『현대국어 심리동사 구문 연구』, 탑출판사.
- 박진호(1994), 「통사적 결합 관계와 논항 구조」, 『국어연구』 123, 서울대 국어연구회.
- 성광수(1974), 「국어 보어 설정에 대한 재고」, 『국어국문학』 64, 국어국문학회.
- 우순조(1994), 「한국어의 형상성과 관계표지의 실현 양상」, 서울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동석(1998), 「국어의 격 증출 구성에 대하여」, 『국어학』 31, 국어학회.
- 유현경(1998), 『국어 형용사 연구』, 한국문화사.
- 이남순(1985), 「주격 증출문의 통사 구조」, 『국어국문학』 93.
- 이익섭(1978), 「피동성 형용사문의 통사구조」, 『국어학』 6, 국어학회.
- 이홍식(1996), 「국어 문장의 주성분 연구」, 서울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홍식(1998), 「문장 성분」, 『문법연구와 자료』, 태학사.
- 임동훈(1997), 「이중 주어문의 통사 구조」, 『한국문화』 19,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원.
- 임흥빈(1974), 「주격증출론을 찾아서」, 『문법연구』 1, 문법연구회.
- 임흥빈(1985), 「국어의 통사적인 공범주에 대하여」, 『어학연구』 21권 3호, 서울대 어학연구소.
- 임흥빈(1987), 『國語의 再歸詞 研究』, 신구문화사.
- 임흥빈(1996), 「양화 표현과 성분 주제」, 『李基文 教授 停年退任紀念論叢』, 신구문화사.
- 임흥빈·장소원(1995), 『국어문법론 I』,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정유진(1995), 「국어의 보어 연구」, 고려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호철(1995), 「국어의 보어에 대하여」, 『한국어학』 2, 한국어학연구회.
- Keenan, E. L. (1976), "Towards a Universal Definition of Subject," in Li ed. (1976).

- Li, C. N. & S. A. Thompson (1976), "Subject and Topic," in Li ed. (1976).
- Li, C. N. ed. (1976), *Subject and Topic*, New York: Academic Press.
- Palmer, F. R. (1994), *Grammatical roles and rel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nders, G. (1984), "Adverbials and Objects", *Objects: Toward A Theory of Grammatical Relations*, Plank ed., London: Academic Press.
- Smith, J. C. (1992), "Circumstantial complement and direct objects in Romance languages: configuration, Case, and thematic structure," *Thematic structure It's role in grammar*, Roca ed., Foris Publication.